

# KCC, 불확실성 소멸 “정상화 기대”

신영증권, 현대 지분매입 관련손실 200억원 이하 ... 공개매수는 계속

금강고려화학(KCC)이 경영권 분쟁 종결에 따른 불확실성 소멸이 주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 종결과 함께 주가상승 여력이 분명히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영증권은 3월31일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관련 손실이 2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KCC가 다시 경영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현금 회수와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KCC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영증권은 우선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지만 2004년 2월1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분 처분명령 이후 시도해온 공개매수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망, 해산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12조7항을 고려할 때 4만원대인 현재의 주가수준과 주당 7만원인 공개매수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공개매수가 100%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개매수 성공으로 KCC가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될 지분은 23.2%, 총 취득원가는 869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공개매수 이후 KCC가 보유지분을 협상을 통해 현대그룹 측에 매각·처분하게 된다면 주당 매각가격은 2003년 기준 3만9545원 수준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당 순자산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4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신영증권은 예상 매도가격을 반영하면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관련손실은 최대 20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화학저널 2004/04/01>